

국제신문 (2004.04.17)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

"日 대륙진출 야심 발로"

금정구청 간부 '亞고속도로' 관련 경계 주장

부산의 한 일선 구청 간부가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 사업은 일본의 대륙진출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막아야 한다는 이색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금정구청 김영기(48) 도시국장은 16일 '아시아고속도로(아시안 하이웨이) 건설과 관련한 정부간 협정조인식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란 자료를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등 아시아 31개국 14만km를 도로로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사업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는 이면에 대륙 진출의 야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대륙국가간 연결도로망 건설에 해양국가인 일본이 참가한 것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를 구축, 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량 피난처로 활용될뿐만 아니라 대륙간 횡단철도의 시·종점을 일본에 빼앗겨 한국고속철도는 국내선만 운행하는 초라한 형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그는 오는 22~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연례회의에서 체결할 '아시안하이웨이 건설과 관련한 정부간 협정 조인식'에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말고, 부산이 대륙간 횡단철도의 시·종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정순백기자 [2004/04/16 22:17]

国際新聞（韓国） 2004年4月17日

**日韓海底トンネルの事業推進で、「日本、大陸進出の野心を発露」
クムジョン区（金井区）の区庁幹部が、「アジアハイウェイ」に関連し警戒を主張**

釜山の一線の区庁幹部が、釜山と日本を結ぶ海底トンネル事業は、日本の大陸進出の道を開く契機となりうるもので、くい止めねばならない、という異色の主張をし関心を呼んでいる。

クムジョン（金井）区庁のキムヨンギ（48）都市局長は、16日、「アジア高速道路（アジアハイウェイ）建設に関連する政府間の協定調印式で、警戒すべきもの」という資料を通じ、「韓国、中国、ロシア、インド、イランなどアジア31カ国14万 Km を道路で結ぶアジアハイウェイ建設事業に日本が積極的に関わる裏には大陸進出の野心が潜んでいる」と指摘した。

大陸国家間の連結道路網建設に海洋国家である日本が加わるの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進めるための計略が隠されているからだというのだ。

日韓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ると、日本と大陸を結ぶ礎を構築、大災難が発生したとき大量の避難所として活用するだけではなく、大陸間の横断鉄道の始点と終点を日本に奪われてしまい、韓国高速鉄道は国内線だけで運行するという哀れな状態に転落しかねないという主張だ。

それゆえ、氏は来る22～28日に中国の上海で開かれる第60回国連アジア太平洋経済社会理事会（ESCAP）年例会議で締結する「アジアハイウェイ建設と関連する政府間協定調印式」に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事業についての論議を含めず、釜山が大陸間横断鉄道の始・終点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政府に強く促した。